

도서관계 각 단체의 새해구상

지난 20세기 말 우리 도서관계는 관중을 초월하여 명칭변경, 기능변경 및 통폐합, 위탁경영, 기능축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2000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금년 2000년도는 새 천년 지식정보사회 출발의 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인 바, 우리 도서관계도 올 한해를 알차고 내실 있는 도서관으로 도약하는 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본지면을 통하여 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 편집자 주

[설문사항]

- ① 귀하께서는 2000년도 도서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② 귀 단체의 올 한해 중점 추진사업 방향을 간략히 알려 주십시오.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박준식 회장



1 2000년은 우리 도서관계가 가상도서관의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보제공기관이 전통적인 도서관 중심에서 인터넷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도서관은 이런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특히 전문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도입하고, 하드웨어를 수와 질적인 면에서 강화시킬 것이며, 다양한 웹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요구에 맞게 전문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직원의 자질을 가상도서관의 환경에 맞게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에 참여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인본주의적 서비스를 구현하거나, 전자화 된 환경에 인본주의적 관점을 가미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한층 더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2 1. 행사의 내실화: 세미나, 워크샵, 도서관장회의 등의 각종 행사를 현안문제 해결, 신기술의 전파, 직원의 재교육 등에 목표를 두고 기획하며, 내용의 내실화를 기한다.

2. 연구개발의 강화: 협의회의 기획위원회를 활용하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개발하며, 협의회에 수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연구를 수행케 할 계획이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전문위원회로는 (1)지역네트워크 및 전문서비스의 실태조사 (2) 사립대학교 도서관의 조직통합의 현상 및 대응책 등 두 개의 전문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고 4월

말의 총회에서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 설치계획으로는 (1)원격정보서비스시스템(질의응답 및 웹기반 참고정보원) 개발 및 공동이용에 관한 테마가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주제의 위원회도 설치될 것이다.

3. 교육부에 대한 정책제안 : 전국대학도서관의 육성, 지원에 관한 정책입안 참고자료를 교육부에 제안하고, 대학종합평가에 있어서 도서관 관련항목에 대한 평가비중을 상향시키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행토록 건의한다.

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한성택 회장



1 후기 산업사회는 도서관계에 유리한 시
대적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
으나 우리의 현실은 이에 대처하

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2000년도 역시
지난해에 비하여 현재의 상황이 발전적으로 변화
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정부의 뚜렷한 도서관 육성책이 미흡하며 현안문
제점들의 개선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는
새 천년 지식정보 사회의 출발의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의 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우리 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의
금년도 중점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올바른 정의정
립에 기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및독서
진흥법시행령」중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우리의

타당한 주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이며 전체 도서관계와의 각 종 협력사업
에도 적극 참여할 것임.

2. 현장의 요구에 따른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서직을 양성배출하기 위하여 교육의 특성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연구 사업을 추진할 것임.

3.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목
표 실현에 적합한 교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임

4. 국가 자격증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독서지
도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자격증
발급관리업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것임.

5.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졸업생들의 재교육
의 일환으로 심화교육과정 설치의 추진과 이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것임.

한국문헌정보학회 이용남 회장

1 한 두 해 단위로 끊어서 우리 도서관계
의 장래를 전망해보기는 쉽지 않은 형편
이지만 앞으로 10년 정도의 기간에 우리는 다음
과 같은 큰 과제들에 직면하리라 예상된다.

첫째는, 지속적인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디지
털 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도서관 기능을 보
완함과 동시에 도서관이란 기관의 정체성을 흔
드는 압력으로 작용할 터인데, 이 도전을 극복하
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리라고 생
각한다.

둘째로는, 지식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이란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장치
가 사회적으로 보장될 수 있느냐의 과제일 것으
로 생각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와 질서가
역사 발전의 기축을 형성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많은 역할이 민간부문으로 대체되고 시장논리에 의한 정보의 상품화가 촉진될 것이므로, 지식정보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 도서관 철학의 근간을 시험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로는, 우리 나라의 경우 '도서관'과 '사서'라는 명칭에 어떠한 형식이던 변화가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물론 전문, 특수도서관 등이 도서관 명칭을 기피하는 사례는 더욱 확산될 터이고, 전문직의 명칭도 개칭의 압력이 거세어, 결국은 도서관계에서 이를 수용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2 학회는 성격상 매년 특별한 사업을 전개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중점 추진사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한국문헌정보학회는 금년 춘계학술발표회(4월 하순 예정)에 약간의 변화를 주기로 하였다. 우리 학계나 현장에서 논점으로 부각하였던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주제 기획 학술발표회'를 준비 중이다. 각 소주제 단위로 3인 이상이 발표할 예정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주제: 2000년대 우리 문헌정보학의 연구방향

제1주제: 문헌정보학의 연구내용, 방법, 형식의 문제

제2주제: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련된 문제

제3주제: 디지털도서관 담론에 대한 입장 및 연구방향

울산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박미영 회장

1 2000년도 정부예산대비 문화예산이 1% 확보됨으로써 본격적인 문화의 시

대가 개막될 것이라 전망한다.

이 예산 중 우선 문화 관광 산업발전의 전체가 되는 순수예술, 전통예술을 진흥하고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문화예산의 43.3%을 배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도서관 관련 주요사업으로 국가 전자도서관 구축,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국립중앙도서관 자료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계기로 도서관이 주요문화기반의 하나로서 진흥과 21세기 정보혁명 사회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리라 전망한다.

2 울산공공도서관 사서협의회가 발족된 지 2년이 경과되었다.

그 동안 친선 도모 차원으로만 운영되어왔던 협의회의 성격을 새 천년을 맞이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검토결과 학술, 홍보, 봉사 분과를 두어 각 분과성격에 따라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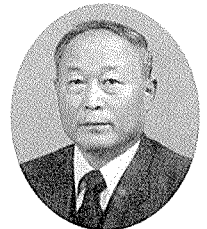
각 소속 분과 사업활동을 통해 사서가 지닌 진정한 지식습득 및 사서들의 전문성제고, 사서들의 권익추구, 지역사회로의 공헌, 그럼으로써 21세기가 요구하는 사서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역할수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강원도도서관연구회

박광하 회장

1 기대속에 맞이한 2000년은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로 인해 희망과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로 주춤했던 각 종 문화활동이 올해에는 문화예산의 대폭증액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에 가는 기대로 크리라 생각한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절대적 존재가치를 지닌 요소가 될 것이므로, 우리 도서관인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주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지난날보다 배가(倍加)한다면, 고대 국가운영의 중심 축이던 왕궁도서관의 영광이 우리 도서관계에도 머지않아 재현되리라 확신한다.

2 창립 2주년을 맞이하게 된 강원도 도서관연구회에서는 도내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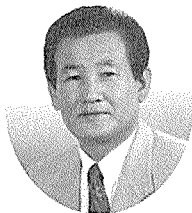
아직은 초기 단계라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못하지만, 올 한해는 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찬회 및 친목행사 등을 개최하여 우리 연구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며 회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

충청북도사서협의회

엄갑도 회장

1 지난해에도 도서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은 한해였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도서관의 인원감축, 공공도서관의 위기를 불러온 명칭변경 문제, 예산절감으로 인한 도서관의 운영비 감축 등 일련의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난해 미국의 컴퓨터 황제 빌게이츠



가 도서관에 2000만 달러를 기증해 화제가 되었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이미 정보화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해 도서관 또는 문화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위축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은 일부 정책담당자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늦게나마 2000년에는 정부에서도 도서관에 관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도서관의 것줄이나 다름없다. 세계는 이미 정보화, 디지털화, 인터넷 쪽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지원방안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도서관인들 스스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때 앞으로 도서관계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본다.

2 충청북도사서협의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분과위원회별 연구발표회를 통한 사서들의 자질향상과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동계세미나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21세기 공공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지역 도서관 전문가를 초청하여 회원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도서관에 맞는 스텝 매뉴얼 작성과 도서관연구회지를 발간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기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회원들의 체력증진과 상호 정보교환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춘계, 추계로 나누어 2회에 걸쳐 등산(산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이종문 원장



1 21세기 정보화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문화시설이 도서관이고 핵심적인 정보전문가가 사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보화사회가 진전되면서 지난 20세기 말 우리 도서관계는 관중을 초월하여 명칭변경, 기능변경 및 통폐합, 위탁경영, 기능 축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도서관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은 2000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계가 겪고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21세기 정보문화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바라기는 2000년도에는 도서관계의 모든 단체가 하나가 되어 도서관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서관과 사서가 정보화사회의 중역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새 천년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은 2000년을 맞이하여 <언론기능>과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정보화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포럼은 언론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오는 2000년 3월부터 정치를 제외한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문화정책 및 지식정보, 기술정보, 교육정보를 포함한 정보문화 전반에 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여 유익한 정보문화를 확산시키고 정보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보문화신문>을 창간한다.

또한 교육기능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1996년부터 매년 상반기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 및 전시

회 명칭을 <디지털도서관 엑스포(Digital Library EXPO)>로 변경하여 국제디지털도서관 엑스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매년 상반기 개최되는 <첨단정보술루선발표회>를 발전시켜 도서관지식정보인프라 기술개발을 선도해나갈 것이다.

특히 디지털도서관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스터디그룹>과 <웹데이터베이스스터디그룹>을 확대 운영하고 민간자격제도로 정보관리사(가칭)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 관련 분야 단행본 출판을 확대하고 도서관정보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무료 정보화컨설팅과 도서관 관련 단체의 웹홈페이지 구축과 웹호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 설문은 공공도서관협의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학교도서관연구회, 한국문헌정보학파교수협의회,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전국사서협회, 도서관운동연구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서울시도서관연구회, 부산도서관연구회, 대구공공도서관사서회,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광주사우회, 광주빛고을사서회, 경기도사서연구회, 충청남도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전남공공도서관연구회, 경상북도사서연구회, 경남공공도서관연구회, 제주도서관연구회, 한국전자도서관협의회(총 29개 단체) 등에도 보냈으나 마감일 전에 도착된 원고만 이번 호에 게재하였음 ■ 편집자주